광주은행, 지역밀착경영·포용금융 강화 나섰다

송종욱 은행장, 경영전략회의
자산관리 강화 사업구조 다각화
지방은행 최고 건전성 유지 포함

광주은행은 18일 '2022년 2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열린 회의는 우수 직원 시상과 우수 영업사례 공유, 2분기 추진사항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진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수석 부사장을 초청해 디지털 금융 대응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올 2분기에 광주은행은 현장 중심의 영업력 강화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고객 요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최적화 전략을 세운다.

또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해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지방은행 최고 수준의 건전성 유지를 중점 추진사항에 포함시켰다.

광주은행은 송종욱 은행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965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달에는 '2022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2018년 이후 5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겹경사를 맞았다. 광주은행은 매년 평가에서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가능성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취임 5주년을 맞는 송 은행장은 '지역밀착경영' 극대화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역경제 여파를 파악하고자 수출입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위한 장정을 떠났다.

그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달 말 기준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총 2만8914건, 1조3026억원에 달한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총 54억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7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올해도 광주신보·전남신보에 각 10억원, 광주시 동·서·북구에 총 1억5000만원을 별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전면 시행과 디지털금융센터 운영 등이 추진됐다.

'호랏차차 디지털예금' '쏠쏠한 마이 디지털적금' 등 비대면 전용 상품은 고객 호응을 얻었고 금융정보기술(핀테크) 기업 '핀다'와 상품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송 은행장은 "포스트 팬데믹을 맞아 은행산업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닌 디지털사업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전통적인 리스크 외에 기후리스크와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은행으로의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의 경영이념을 최우선으로 지역밀착경영·포용금융 실천에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이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 2분기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CPTPP 가입땐 농수산 연평균 5000억 피해…농어민 반발

윤재갑 의원실 오늘 연속토론회
농업 4400억·수산 724억 감소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19일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9일과 2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수산업은 CPTPP 가입으로 연평균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수산업은 724억원, 농업 부문은 4400억원 상당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무역협정에서 농수산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의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부문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드 이사장을 좌장으로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과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문한필 교수는 토론 자료에서 "CPTPP 가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쌀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는 등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일본에 대한 농식품 양허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직접 피해보전제도의 하나인 폐업지원제를 농가 기준으로 제도를 확대·개편해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업경영체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스마트공장 재직자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중진공 호남연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에 참여할 1차 교육생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전국적으로 360명을 모집한다. 호남연수원은 광주·전주 스마트공장배움터 2곳에서 이원화해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는 ▲데이터 분석 ▲제조 자동화 ▲운영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연수 기간은 총 3개월이다. 세부적으로는 ▲오리엔테이션(6시간) ▲온라인 이론 교육(48시간) ▲오프라인 실습 교육(16시간) ▲현장 프로젝트(80시간) ▲결과보고회 및 수료식(10시간) 등 총 160시간이다.

교육 참여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sbti.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서창농협, 상호금융 대출금 7000억 달성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18일 서창농협이 '상호금융 대출금 7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농·축협 건전 경영과 내실 있는 사업성장을 유도하고자 농협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서창농협은 농업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영농자금 지원대출과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020년 상호금융 대출금 6000억원 달성에 이어 2년여 만에 7000억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NH콕뱅크,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개시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 중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93.21 (-2.85)
↓	코스닥	918.23 (-6.21)
↑	금리 (국고채 3년)	2.990 (+0.046)
↑	환율 (USD)	1234.40 (+4.80)

한전, 나토 사이버보안 합동 훈련 참가

한국전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훈련 '락드쉴즈'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락드쉴즈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가 회원국 간 사이버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다국적 사이버 훈련이다.

한전은 올해 2월부터 국방부,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민·관·군 8개 기관의 70명 규모로 연합팀을 구성해 준비해왔다. 훈련 기간 동안 약 30개 팀과 온라인 경합을 벌이게 된다.

락드쉴즈는 크게 기술훈련과 전략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술훈련은 참가팀이 위성통신·전력·금융 등 8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이고, 전략훈련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상황보고·공유·지휘 절차·미디어 전략 등 대응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한전에서는 각종 보안 경진대회 입상자 위주로 구성된 사내 정보보안 우수인력 7명이 참가한다. 에너지 분야의 한국 합동 방어팀 일원으로 가상의 전력제어시스템에 대한 나토 사이버 공격팀의 전산망 침투 시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한전은 전력산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설비 보안규격 수립, 악성코드 탐지기능 고도화 등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1. 해광, 샹그릴라 APT
- 선암동, 공105㎡ 전82㎡
- 10층, 101동, 남향, 조망 좋음
-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 5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2. 신안동, 상업용지
- 대지582㎡, 알반 상업 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최고요지
- 매매 – 21억

3. 대인동, 상업용지
- 대지515㎡, 알반 상업 지역
- 롯데백화점 부근
- 매매 – 19억

4.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계 108㎡, 전 67㎡
- 내부깨끗, 창가쪽, 전망 좋음
- 매매 – 1억 1000만원 (토지와 교환가능)